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의 음식’ 기록				
구술자명	-	면담자	정은주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21년 10월 7일	회차	1	시간	11분 27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0891				
구술 개요	초등학교 때 처음 먹어보았음, 만두 기억은 없음, 떡만이는 1인분으로 두 개의 맛을 볼 수 있어 장점이라고 생각함, 어릴 때 먹었던 기억과 추억 때문에 먹는 가게, 요즘의 맛을 쫓아가지 않고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				
주요 색인어	미추홀구, 떡볶이, 떡만이, 초등학교, 학익사거리, 만두, 시장, 버스, 양토마을, 가게, 의자, 맛, 입맛, 오텍, 추억, 학교, 기억, 분위기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첫 기억			00:00:00~ 00:04:19	▷ 기록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기록검수확인서	
-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음. - 초등학교 때 학익사거리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몇 번 들렀고, 그 이후에 못 가다가 사회인이 돼서 다시 가게 됨. - 학익 구시장 쪽에 있던 것을 기억함. - 양토마을에 사는 친구가 데리고 갔는지, 언니랑 갔는지 첫 시작은 기억이 안남.					
2. 옛날 가게와 맛			00:04:20~ 00:06:03		
- 잘 기억은 안나지만 시장에 있는 떡볶이 집 느낌이었음. - 자주가지 못해 맛은 기억이 안나지만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함.					
3. 만두			00:06:04~ 00:07:33		
- 초등학교 때 만두까지 사먹을 입장이 아니어서 만두 기억이 없음. - 떡만이를 별로 안좋아하지만 1인분으로 떡볶이와 만두를 다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					
4. 가게의 추억			00:07:34~ 00:09:23		
- 사람이 많아 항상 기다려야 하는 것과 식탁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리 구분이 없었음. - 어릴 때 먹었던 기억과 추억 때문에 먹는 가게였음.					
5. 이전하는 가게			00:09:24~ 00:11:27		
- 옛날 분위기를 갖고 있을 수 없어 아쉬움. - 요즘의 맛을 쫓아가지 않고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					